

광주·전남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전남은 적자 지속 '비상'

광주세관 '6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발표
무역흑자 3억300만 달러...전년대비 4.7% 뚝

6월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수출입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한 34억1400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1억1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3억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경기불황기에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커 흑자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무

역수지 흑자'다. 지난 5월과 비교해도 수출이 8.4% 감소하고 수입이 8.8% 줄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3.5%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고 수입은 4.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37억7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11억1000만 달러, 수입은 4.3% 감소한 5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8%), 기계류(3.4%)가 증가했으나

반도체(17.0%), 가전제품(1.6%), 타이어(15.0%)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5.6%), 화장품(2.3%)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8.6%), 가전제품(6.7%), 고무(43.8%) 등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23억400만 달러, 수입은 20.9% 감소한 25억8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8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무역수지 적자액(4억500만 달러)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333.4%), 기계류(375.2%)가 증가했으나 화장품(24.8%), 석유제품(44.1%), 철강제품(4.6%)은 감소했다. 수입은 석탄(9.8%), 철광(4.2%)이 증가하고 원유(25.5%), 석유제품(50.5%), 화장품(8.3%) 등은 감소했다. 신봉우 기자



'인어 날다' 하이라이트 기술 선보이는 한국 대표팀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출전 27개팀 중 12년째로 연기를 펼친 한국팀(백서연·김준희·김지혜·구예모·이가빈·이재현·이리영·이유진)은 '어둠과 빛'을 주제로 독창적인 아크로바틱 연기를 선보였다. 한국팀은 수평(Ex) 23.2점·예술 인상(Ai) 30.6667점·난이도(D) 23.3점, 총점 77.1667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세계적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실감했다. 결선 진출 최하위팀인 벨라루스의 총점 82.5667점과는 5.4점 차이였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희망

고흥 녹동고 학생들이, 교황과 노벨상위원회에 편지 500통 전달



고흥 녹동고 학생들이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하는 편지 500통을 작성,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측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하는 편지 수백통을 작성, 교황과 노벨상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17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흥 녹동고 학생 250명은 소록도에서 소외받고 절망에 빠진 한센인들을 위해 40여 년간 헌신해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희망하는 편지 500통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했다.

학생들은 편지 한 장 한 장을 파일에 담아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측에 전달했다. 250통은 교황에게, 나머지 250통은 노벨상추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벨평화상 수상 희망 편지쓰기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민주주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송고한 학생정신을 보인 두 간호사의 참봉사나눔, 소통과 공감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2학년 한 학생은 "지난 6월 마리안

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초청을 받아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는 두 간호사의 무한한 사랑을 담은 영화를 보고서는 큰 감명을 받았다"며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김연준 이사장은 "녹동고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돼 바티칸 교황청과 노벨상추진위원회에 편지를 써줬는데 전교생이 함께 해 자랑스럽다"며 "'사랑을 받았던 나라'에서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녹동고는 이와 함께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수상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동참, 전교생 276명과 교직원 40명의 서명서를 전달했고, 관련 UCC도 제작하고 있다. 녹동고는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의 하나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나눔과 희생정신을 기초로 책임과 존엄, 협동의 학교민주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무안 **제23회** The 23th Muan Lotus Festival

연꽃축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2019. **7.25.(목)** ▶ **7.28.(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 주관 : 무안군 /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